

“中, 시진핑 제거 군사정변 발각”

美 중화권 매체 보신 보도...양회 첫날 군부 일부인사들이 주도

‘비리 호랑이’ 사냥에 반발 영관급 이상 300명 체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 3일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정변 기도설이 흘러나왔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도(博迅)이 보도했다.

보신은 베이징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군부의 일부 인사들이 당 총서기의 경호를 담당하는 당 중앙판공청 산하 중앙경위국(일명 9국) 병력을 동원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정권을 전복하는 군사 정변을 기도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판장룡(范長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이 정변 기도를 주도했으며, 이들은 사전에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 정칭홍(曾慶紅) 전 국가 부주석 등과 접촉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이 정변 기도 계획을

사전에 발각하고 베이징군구 38특수부대를 긴급 출동시켜 중앙경위국 영관급 이상 간부 300여 명을 무장해제시키고 이들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보신은 이날 오후 9시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의 뉴스프로그램인 신원론펠(新聞聯播) 재방송에는 판장룡 부주석과 창완취안 부장이 정협 개막식에서 주석단에 참석한 모습이 방영됐다면 앞서 보도된 2~3일 더 지켜봐야 이번 정변 기도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 부주석과 창 부장은 작년 3월에도 차기 군 부패의 몸통으로 지목되면서 조만간 낙마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 적이 있다.

앞서 보신은 중국의 일부 부패 고위 관료와 지방 관료가 시 주석 등 지도부를 암살하기 위해 미국산 저격용 소총과 사제 폭탄 등을 구입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면 시 중국 당국은 이를 계기로 시 주석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정변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최대의 정치이벤트로 불리는 양회 시즌에도 시진핑 체제의 ‘호랑이(부패 고

위관료) 사냥’은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정협 개막일인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허베이(河北)성 공산당 위원회 상무위원인 징춘화(景春華·59) 비서장이 ‘엄중한 기율위반·법률위반’ 혐의로 내부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징춘화는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관료로 중국 사정당국이 양회 기간에 고위 관료의 ‘낙마’ 소식을 발표한 경우는 많지 않다. 중국 수도권인 허베이성에서 장·차관급 관료가 낙마한 경우는 지난해 11월 랑빈(梁濱) 당 조직부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중국군망(中國軍網)은 지난 2일 권위 있는 군 당국을 인용, 최근 중대사건에 연루된 군급(軍級·장성급) 이상 군 간부 14명의 체포 및 조사 상황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체포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귀보송(郭伯雄·72) 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아들인 귀정강(郭正鋼) 인민해방군 저장(浙)성 군구 부정치위원회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이라크軍, 티크리트 봉쇄 시도

IS거점서 교전...조직 2인자·고위 간부 등 사살

이라크군이 살라후딘 주(州)의 요충지 티크리트 탈환 작전 이틀째인 3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가 점령한 인근 지역을 일부 되찾으면서 봉쇄망을 좁혔다.

주요 외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이날 티크리트로 통하는 여러 방향의 도로를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

이날 작전엔 이라크군뿐 아니라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사베), 친정부 수니파 부족 등 2만5000명~3만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티크리트 시내엔 진입하지 못했으나 북쪽 카시디아와 남쪽 잘람, 리사이, 바나트 알하산을 탈환했다. 또 티크리트에서 남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IS의 거점인 알두르에서 교전을 벌여 주거지역을 장악했다.

알자지라에 이날 공격에서 티크리트 남부를 총괄하는 IS 고위 간부가 교전 중 사망했고 다른 간부들은 동쪽 산악지역으로 도주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살라후딘주를 담당하는 IS 조직의 2인자인 아부 오베이드 알투니시가 티크리트 남쪽에서 사살됐다고 전했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 산하 특수군 사령관 카심 솔레이마니는 이날 시아파 민병

이라크군, 티크리트 봉쇄 시도



대를 전장에서 직접 지휘했다고 파르스통신은 덧붙였다. IS는 이에 맞서 지상전과 동시에 길목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티크리트로 이어진 도로에 집중적으로 묻은 지뢰와 폭발물을 폭파하는 전략으로 이라크군을 저지했다. /연합뉴스

올 노벨평화상 후보자

개인 227명·단체49곳 천거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개인 227명과 단체 49곳 등 총 276명이 천거됐다고 노벨 평화상 심사기관인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숫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단 두 명 적은 것이라고 올라브 은홀스타드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이 전했다.

후보자 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콩고 민주공화국 의사 드니 무케게, 미국의 내 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메모리얼’ 등이 포함돼 있다.

노르웨이 의원 여러 명이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 단체를 공개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은 파키스탄 교육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어린이 인권보호운동가인 인도의 카일라시 사티아르티가 공동수상했다.

이날 노벨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재직해 온 카시 쿨만 파이브가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고 임기는 6년이다.

노벨 평화상은 스웨덴에서 선정하는 다른 노벨상과 달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선정하며 수상자는 대개 10월에 발표된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 인근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야권 지도자인 보리스 넴초프 영결식이 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동쪽 사하로프 센터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러시아 야권지도자 넴초프 장례식

美대사 등 외국 조문단

지지자들 수천명 참석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인근에서 피살된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55)의 장례식이 3일(현지시간) 치러졌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약 4시간 동안 모스크바 시내 동쪽 사하로프 센터에서 영결식이 열렸고 뒤이어 모스크바 서쪽 트로예쿠로보 국립묘지에 고인의 시신이 안장됐다.

영결식에는 야권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은 물론 정부 측 인사들과 외국 조문단 등 수천명이 참석했다.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기위한 인파가 영결식장 밖으로 1km 넘게 줄을 섰으며 수백명은 끝내 식장으로 입장하지 못했다.

앞서 유족에게 전달한 조전에서 넴초프를 러시아 역사와 정치,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높게 평가하며 살해범 체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정부 대표로 세르게이 프리호디코 부총리가 참석했으며 또다른 부총리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니콜라이 페도로프 농업부장관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넴초프와 함께 자유주의 성향의 공화·국민자유당(RPR-PARNAS) 공동의장을 맡아온 마하일 카시아노프 전(前) 총리는 추도사에서 “넴초프는 성공적인 주지사이자 부총리, 개혁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살해범은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야권 지도자 블라디미르 리슈코프는 이번 사건은 “국가적 규모의 무서운 정치 살해이자 총격과 공포”라면서 “야권

은 그를 잃은 손실을 보충하지 못할 것”이라고 슬퍼했다.

외국 사절론 존 테프트 주러 미국대사와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대사 등이 참석했다.

4시간 동안의 영결식이 끝나고 오후 2시께 넴초프의 시신이 담긴 관이 식장 밖으로 둘러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문객들은 박수를 치고 꽃을 던지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했다.

뒤이어 넴초프의 시신은 모스크바 서쪽 트로예쿠로보 묘지로 운구돼 안장됐다.

넴초프는 앞서 지난달 27일 크렘린궁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모스크바강 다리 위에서 고한의 무자비한 총격을 받고 숨졌다. 푸틴 대통령의 조속한 법인 검거 지시와 수사당국의 총력 수사를 불구하고 법인의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연합뉴스

넴초프 피살사건 배후 놓고 논란 여전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보리스 넴초프 피살 사건 배후와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3일(현지시간) 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넴초프 피살 사건에 망명 체첸인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정부군 산하 부대가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 저격 기도 사건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한 체첸인 아담 오스마예프가 이끄는 ‘조하르 두다예프’ 부대가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러시아 정치 상황을 혼란스럽게 할 의도로 야권 인사인 넴초프를 살해

했다는 것이다. 그 배후엔 미국의 지시를 받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야권은 이같은 가설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넴초프가 누구보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온 마당에 키예프 정보기관이 그를 살해하려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운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